

<10.16873/tkl.2023. 94. 8>  
한국문학논총 제94집(2023. 8) 103~128쪽

## 수난과 희망: 피난수도 대학 음악교육 시론\*

김 희 진\*\*

### 차 례

- |                                  |   |
|----------------------------------|---|
| 1. 서론                            | 2) 대학 음악교육의 수난과 새로운<br>성장의 단초           |
| 2. 전시 대학 음악교육의 수난 그리<br>고 성장의 단초 | 3. 전시 음악전공생의 수난과 희망, 작<br>곡가 이영자의 음악 경험 |
| 1) 대학교육의 중단과 재개                  | 4. 결론                                   |

### 국문초록

이 논문은 6·25 전쟁 시기 대학 음악교육을 논의한다. 전쟁 발발 당시 대학의 음악전공 교육은 세 개의 대학-이화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서울대학교-에서 이루어졌다. 이들 대학은 피난수도 부산으로 이전하여 교육을 계속했으며, 대학의 피난과 전시의 혼란은 대학 음악교육

\* 이 논문은 2023 한국문학회 상반기 학술대회에서 기획주제 『부산 문화예술사의 재구성 II』 부분을 구성하는 논문들 가운데 하나로 발표했던 「한국 고등음악교육 재구축을 통해 읽는 부산지역 음악사, 1950-1953」을 보완하고 재구성하여 작성하였다.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에 대하여 주신 조언에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

\*\* 한국예술종합학교 겸임교원

에서 정형화된 설명이 어려운 다양한 양상들을 초래했다. 본 연구는 이 시기의 대학 음악교육이 전쟁의 혼란을 거치고 수난을 겪는 한편, 성장의 단초들 또한 이 시기에 형성되고 있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음악교육의 틀에 확장이 이루어지고 음악교육의 위상을 높이는 체제의 변경이 이루어진 대학이 있었으며, 피난민이 밀집한 부산에서 가능했던 음악전문가와의 예기치 않은 조우가 음악전공생에게 전쟁 이전에 예정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미래의 진로를 개척하는 결정적 기회가 되었음을 구체적인 예를 통하여 설명한다. 기존 연구 문헌, 대학이 발행한 역사기술, 신문 기사, 개인적인 전시(戰時) 기록과 구술 사료의 분석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이 논의는, 다양한 자료에 흩어져 존재하는 전시 대학 음악교육에 대한 정보를 통합하여 당시 음악교육에 대한 이해의 증진에 기여하며, 피난수도 부산에서 이루어진 음악교육의 역사를 통하여 부산문화사의 이해에 기여하리라고 사료된다.

주제어: 음악교육, 대학교, 고등교육, 6·25전쟁(한국전쟁), 부산, 피난수도, 이영자(작곡가)

## 1. 서론

6·25 전쟁이 휴전된 지 70년이 되는 해를 맞아 참혹한 전쟁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파괴와 살상이 일상을 암도하던 시기에도 포기되지 않았던 희망의 증거를 전시(戰時) 음악교육에서 발견한다. “지금 낮 두 시 ... 졸림을 참고 천막 친 교실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다. 훑바닥에 놓인 판자 의자가 너무 알아서 내 후레아[플레어]치마는 온통 훑가루에 세계지도를 그린 것 같아. 그래도 툭툭 털고 일어서면 그런대로 대충 털리거든 ...”<sup>1)</sup>

1) 이영자, 『불사조의 노래』, 서울: 문학관, 128쪽.

6·25 전쟁을 거치는 동안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으로서 피난수도 부산에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또한 작곡 공부를 했던 작곡가 이영자의 전시 기록에서 발견되는 이 문장들은, 전시 대학의 임시 강의실 모습뿐 아니라 천막에서라도 교육을 지속하고자 했던 대학 당국의 의지만큼이나 개인했던 음악전공 학생의 의지와 의연함을 감지하게 한다.

이 연구는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피난수도 부산에서 이어진 대학 음악교육의 면모를 고찰한다. 대학 음악교육이 전시에 거쳤던 혼란과 수난의 양상을 드러내는 한편, 수난의 와중에도 음악교육이 지속되는 동안 대학 음악교육의 새로운 성장 가능성이 만들어졌으며, 음악전공자의 개인적 삶에서도 전반적인 불운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진로의 결정적인 기회가 피난 중인 음악전문가들이 밀집한 부산의 문화 공간에서 마련되기도 하였음을 설명하고자 한다.

전쟁 빨발 시점에 음악전공 커리큘럼을 운영하던 서울지역 대학으로는 이화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서울대학교가 있다.<sup>2)</sup> 6·25 전쟁기의 문화사는 그 전모가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여전히 많으므로 역사서술에 보이지 않으나 전쟁 빨발 시점에 존재했던 다른 대학의 음악전공 교육이 발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이 연구에서는 일단 당시 음악전공 교육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위의 세 대학을 중심으로 전시 대학 음악교육을 살펴보기로 한다.<sup>3)</sup> 시기적으로는 1950년 전쟁 빨발

2) 서울대학교20년사 편찬위원회, 『서울대학교20년사』, 서울: 서울대학교20년사 편찬위원회, 1966.; 숙대30년사 편찬위원회, 『숙대30년사』,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1968.; 이화70년사 편찬위원회, 『이화70년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56.  
1953년에는 2년제 초급대학에 준하는 예술전공학교인 서라벌예술대학이 문교부의 정식 인가를 받았고, 여기에 음악과도 설치되었다고 한다. 「서라벌 예대」 정식으로 인가, 『부산일보』, 1953.06.05. (1972년 중앙대학교가 서라벌예술대학을 합병)

3) 해방 이후 고등교육을 지향하는 음악학교들이 태동하고 있었다. 부산지역의 예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남영희, 『해방기 부산음악사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남영희 · 이순욱, 『해방기 부산 음악교육기관과 음악교육』, 『인문연구』 97,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1, 222-243쪽.

이후 1953년 휴전에 이르기까지를 다룬다. 언급된 세 개 대학이 발행한 대학 역사서술에서 전쟁 시기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이에 추가하여 당시의 신문 기사를 선별적으로 참고하면서, 더욱 구체적인 당시 대학 음악교육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작곡가 이영자의 전시 음악교육 사례를 함께 다룬다. 이영자는 1950년 전쟁 발발 한 달여 전에 이화여자대학교 예림원 음악학부에 피아노 전공으로 입학하였고, 부산 피난 중에 음악전공자로서 대학 교육을 받았으며, 음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으로 캠퍼스 외부에서도 개인적으로 다양한 음악 경험을 하였다. 작곡가 이영자의 사례 연구는 그의 전시 기록과 구술 기록을 참고한다.<sup>4)</sup>

이 연구는 여러 대학의 역사서술에 분산되어 있었던 음악교육에 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통합적 시각에서 재구성하여, 전시 대학 음악교육의 전체상 이해를 위한 연구 시론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또한 해방 이후 1940년대 후반기 고등교육을 지향했던 부산지역의 교육 기관에 대한 기존 연구에 이어,<sup>5)</sup> 그 이후 시기에 부산에서 이루어진 대학 음악교육의 면모를 밝혀, 부산음악교육사 연구를 보완한다. 덧붙여, 이 연구는 선(先)거주민과 전쟁 중 유입한 피난민이 함께 형성한 피난수도 문화사를 부산문화사의 일부로 포함하는 연구의 연장선에서,<sup>6)</sup> 피난대학 교육의

4) 작곡가 이영자가 부산 피난 시절 고향의 친구에게 보낸 다수의 편지에는 일기처럼 당시 음악전공생 이영자의 피난수도 음악 경험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은 전쟁문학의 특수한 한 예로 간주 될 수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대학 당국이 남긴 전시 음악교육에 대한 공적 기록을 보완하는 구체적인 개인적 기록으로 참고한다. 이 연구에서는 또한 전쟁 이후 작성된 이영자의 학술행사 토론문과 구술 기록도 연구 자료로 참고한다. 이영자, 「나의 이화회고」, 『이화음악 114년의 음악교육 : 2000 정기학술대회』,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음악연구소, 2000, 78~82쪽.; 이영자, 『불사조의 노래』, 서울: 문학관, 2014.; 이영자, 『이영자』, 서울: 대한민국예술원, 2023.; 이영자, 『이영자』, <https://www.daarts.or.kr/handle/11080/60659>, 2023.06.24. 접근.

5) 남영희, 「해방기 부산음악사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남영희 · 이순숙, 「해방기 부산 음악교육기관과 음악교육」, 『인문연구』 97,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1, 222~243쪽.

6) 김창욱, “광복~한국전쟁기 부산음악계: 부산지역 일간지를 중심으로,” 『항도부산』

재구성을 통하여 부산문화사 연구에 기여하리라고 사료된다.

## 2. 전시 대학 음악교육의 수난 그리고 성장의 단초

### 1) 대학교육의 중단과 재개

전쟁 발발이 사회의 전 영역에 혼란스러운 비상사태를 초래했던 만큼, 대학 교육도 그 예외가 되지 못하였다. 전쟁 발발 직후 문교부 등 행정 당국 책임자들의 대책 회의에 대학 운영 책임자가 참여했다는 기록은 있지만,<sup>7)</sup> 적의 진격 속도가 대학 당국의 대처 속도를 능가하는 것이었다. 결국 대학의 체계적인 피난은 불가하였다.

서울대학교의 예를 보면, 급변하는 전세로 인하여 계획적인 피난이 어려워 많은 수의 기자재와 구성원이 서울에 남겨졌다. 『서울대학교 40년사』는 “창건 후 채 4년이 되지 못하던 신생 서울대학도 전란으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없었다. 서울이 불과 사흘 만에 적의 수중에 들어감으로써 대학의 피난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많은 수의 교수들이 적 치하의 서울에서 빨리 뛰었고, 귀중한 각종 실험 기자재와 장서들을 고스란히 적의 수중에 남겨두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sup>8)</sup>

16. 부산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2000, 278-346쪽.; 김창욱, 「한국전쟁기 부산음악의 사회사」, 『음악학』 8, 한국음악학회, 2001, 85-129쪽.; 남영희, 「한국전쟁기 피난수도 부산과 전시음악사회」, 『한국문학논총』 91, 한국문학회, 2022, 5-46쪽.; 이순우, 「한국전쟁기 부산지역 예술사회의 동향: 미발굴 잡지『예술타임쓰』를 중심으로」, 『항도부산』 45, 부산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2023, 277-312쪽.; 제갈삼, 「한국전쟁기 부산음악의 실상 - 음악인 · 음악단체 · 연주회장 · 감상실 등을 중심으로」, 『음악학(音.樂學)』 8, 한국음악학회, 2001, 131-184쪽.; 조선우 외, 「부산 음악사 서술을 위한 시론」, 『음악과 민족』 19, 민족음악학회, 2000, 71-121쪽.

7) 이화70년사 편찬위원회, 『이화70년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56, 163쪽.

8) 서울대학교40년사 편찬위원회, 『서울대학교40년사: 1946-1986』, 서울: 서울대학교, 1986, 44쪽.

음악전공을 설치하고 있던 다른 대학도 사정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였다. 이화여자대학교의 경우 총장이 전쟁 발발 이튿날 개최된 문교부 중앙위원회에 참석하였으나, 이후 급격하게 불리해진 전세로 인하여 대처 불가능한 상태로 서울을 떠났다고 한다.<sup>9)</sup> 숙명여자대학교의 경우, 1·4 후퇴 때조차 “중요한 비품은 전부 창고에 넣어두고 완전히 폐문하였다. 그리고 학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학적부만은 독에 넣어서 그것을 지금의 본관 중정에 땅을 깊이 파고” 묻은 채 피난하게 되었다고 하는 기록에 미루어볼 때, 전쟁 발발 당시의 피난은 더욱 대처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졌으리라고 추정된다.<sup>10)</sup>

피난 상태의 여러 대학이 교육 정상화를 위한 중간 과정으로 채택하였던 것이 전시연합대학이라는 형태였다. 1950년 서울수복 이후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했던 시기에 연합수업 형태로 서울에서 10월과 11월에 진행됐던 교육을 전시연합대학의 전초 단계로 본다면, 1951년부터 부산 등지에서 운영된 전시연합대학은 그 본격적인 단계로서 일 년가량 운영되었다. 전시연합대학은 부산, 광주, 전주, 대전 등에서 운영되었다. 전 사회적 위급상황에서 임시방편 격으로 운영한 연합대학 체제였던 만큼, 전시연합대학이 운영되었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모든 대학이 전시연합대학에서 교육을 시작하고 함께 마무리한 것은 아니다. 대학에 따라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은 대학이 있었고, 참여한 시기도 각 대학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sup>11)</sup>

9) 이화70년사 편찬위원회, 『이화70년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56, 164 -165쪽.

10) 숙대30년사 편찬위원회, 『숙대30년사』,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1968, 74쪽.

11) 전시연합대학에 대한 연구로 다음을 참고. 박선영·김희용, 「한국전쟁기 대학상황의 이해: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37,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08, 341-370쪽.; 손인수, 「한국동란중 전시연합대학에 관한 연구」, 『교육연구』 29,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1995, 49-62쪽.; 연정은, 「전시연합대학과 학원통제」, 『사립』 24, 수선사학회, 2005, 275-303쪽.; 최해교, 「전시연합대학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여러 지역에서 운영된 전시연합대학 가운데 부산에 위치한 전시연합대학이 그 주축을 이루었다. 부산전시연합대학 운영위원회에는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국학대학교, 한국대학, 국민대학, 신흥대학, 단국대학, 세브란스의과대학, 숙명여자대학교, 서울여자의과대학이 참여했다고 하며, 이들 10개 학교의 교수 이외에 몇몇 대학 교수도 운영위원회에 함께 했다고 한다. 재학생 수의 측면에서도 부산 전시연합대학교 학생이 4천여 명으로 전체 전시연합대학생의 3분의 2 가량을 차지했다고 한다.<sup>12)</sup>

전란이라는 비상사태에서 대학 교육의 주체들은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실행을 우선하고, 사후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체계를 공식화하는 순서를 밟았다는 것이 전시연합대학에 대한 필자의 전반적인 이해이다. 1·4 후퇴 후의 전시연합대학의 경우도 법적 근거가 완비된 것은 강의를 시작한 이후였다. 1951년 2월 26일에 발표된 「전시하 교육특별 조치요강」으로 수업 재개가 시달되었으나, 전시연합대학의 교육 체제를 뒷받침하는 법령은 5월 4일에 공포된 「대학교육에 관한 전시특별조치령」이었고, 이 조치령의 공포 이전에 전시연합대학은 이미 강의를 시작하였다. 전시연합대학의 체제에서는 피난 중인 대학생이 등교 가능한 타 대학에서라도 수강을 하면 그것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해 주고, 단독 수업이 불가한 피난대학은 합동으로 강좌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여기에서 학점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전세가 상대적 안정기에 들어서고 독자적 운영을 재개할 수 있는 대학의 수가 늘어나면서 전시연합대학은 1952년 5월 31일 자로 공식적으로 해체되었다.<sup>13)</sup>

12) 박선영·김희용, 「한국전쟁기 대학상황의 이해: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한국학 논집』 37,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08, 352-355쪽.; 최해교, 「전시연합대학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25-28쪽.

13) 박선영·김희용, 「한국전쟁기 대학상황의 이해: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한국학 논집』 37,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08, 354-359쪽.; 손인수, 「한국동란중 전시연합대학에 관한 연구」, 『교육연구』 29,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1995, 52-54쪽.; 최해교, 「전시연합대학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25-28쪽.

한편으로 전시연합대학이 운영되었고, 다른 한편으로 (전시연합대학에 참여하는 대학을 포함하여) 각 대학은 임시캠퍼스에서 독자적인 대학 운영을 준비하였다. 음악전공 교육을 하던 세 개 대학만으로 한정하여 임시캠퍼스가 위치했던 곳과 독자적으로 학교 운영을 시작한 시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이화여자대학교: 부산시 부민동 3가 8번지, 1951년 가을 개강<sup>14)</sup>
- ▶ 숙명여자대학교: 부산시 동대신동 3가 109번지 구덕수원지 앞, 1951년 가을 개강<sup>15)</sup>
- ▶ 서울대학교: 부산시 서대신동, 광복동 등지에 분산하여 임시캠퍼스 구축, 음악부는 부산시 암남동 176에 배치, 1952년 개강<sup>16)</sup>

부산의 임시캠퍼스에서 교육을 하던 위의 세 대학은 전세가 안정되면서 서울로 복귀하는 수순을 밟았다. 그 중간단계로 각 대학은 1953년 서울에 분교를 설치하여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신입생을 (경우에 따라서는 피난에서 돌아온 학생 등도 포함하여) 서울 분교에서 교육하기 시작하였다. 마침내 1953년 6월 27일 휴전협정이 조인되었고, 이후 각 대학은 서울로 복귀하였다.<sup>17)</sup>

14) 이화여자대학교 음악연구소,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의 역사: 1886-2002』,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음악연구소, 2003, 125쪽.; 이화70년사 편찬위원회, 『이화70년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56, 169쪽.

15) 숙대30년사 편찬위원회, 『숙대30년사』,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1968, 74쪽.

16) 서울대학교20년사 편찬위원회, 『서울대학교20년사』, 서울: 서울대학교20년사 편찬위원회, 1966, 98-102쪽.

17) 민은기 외,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50년사』, 서울: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1997, 11쪽.; 서울대학교20년사 편찬위원회, 『서울대학교20년사』, 서울: 서울대학교20년사 편찬위원회, 1966, 85쪽.; 숙대30년사 편찬위원회, 『숙대30년사』, 서울: 숙명여자대학교출판부, 1968, 77-78쪽.; 이화70년사 편찬위원회, 『이화70년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56, 175-179쪽.; 창학 100주년사 편찬위원회, 『숙명 100년: 1906-2006, I』,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창학 100주년사 편찬위원회, 2008,

## 2) 대학 음악교육의 수난과 새로운 성장의 단초

이상과 같은 전시 대학 교육의 전반적 틀 속에서 대학 음악교육이 진행되었다. 전쟁이라는 비상사태에 처하여 시설 기자재 교육내용 등에서 고등 음악교육의 여건을 적절히 갖추기는 불가하였으나, 향학 의지를 가진 음악전공자에게 전시에도 배움의 터전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피난 수도에서의 대학 음악교육은 우선 그 의미가 작지 않다.

전쟁 발발 직후 음악전공 교육을 제공하던 대학들이 피난 대책도 채 마련하지 못하고 서울을 떠나야 했으니 서울지역에 소재한 세 개 대학에서 이루어지던 음악교육도 일시 중단 상태에 이르렀다. 하지만 피난수도 부산이 대학 음악교육의 새로운 거점이 되었다. 전시연합대학에 예술학부가 설치되어 음악교육은 예술학부 교육의 일부로 가능하였고, 대학들이 독자적 운영을 재개하면서 각 대학의 체제에 따라 피난수도에서의 음악교육이 지속되었다.<sup>18)</sup>

서울대학교의 경우 예술대학 음악부의 피난은 부산뿐 아니라 대구로도 이루어졌다. 피난하여 대구에서 우선 머물렀던 곳은 남산동 능인중학교 교사, 부산에서 우선 머물렀던 곳은 광복동 시장 안의 개조 창고였다 고 한다. 그리고 부산 암남동에 임시캠퍼스를 구축하여 그곳에서 음악교육을 계속하였다.<sup>19)</sup> 피난지에서 음악부는 하위의 3개 부로 나누어 가르쳤다. 즉 기악부(피아노과, 바이올린과, 첼로과, 떠블베이스[더블베이스]과, 관악과), 성악부(리이드[리트]과, 오페라과), 작곡부에서 학생들이 공

---

343쪽.

18) 서울대학교20년사 편찬위원회, 『서울대학교20년사』, 서울: 서울대학교20년사 편찬위원회, 1966, 83쪽.

서울수복 이후 1·4 후퇴 이전에 서울에서 운영되었던 연합수업 시기에는 음악부가 설치되어 음악 전공교육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서울대학교20년사 편찬위원회, 『서울대학교20년사』, 서울: 서울대학교20년사 편찬위원회, 1966, 83쪽.

19) 민은기 외,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50년사』, 서울: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1997, 7쪽.; 서울대학교20년사 편찬위원회, 『서울대학교20년사』, 서울: 서울대학교20년사 편찬위원회, 1966, 102쪽.

부했다. 1951년 11월 현재 전임강사 이상 교원수는 13명이었다고 하며, 김성태 전봉초 현제명 등이 이에 포함된다.<sup>20)</sup> 하지만 피난 과정에서 음악부는 악기 등 기자재와 악보 등 서적의 상당 부분을 잃었다. “악기는 동란으로 말미암아 거의 소실되었고 새로 장만한 피아노 수대밖에 갖추지를 못하였다. 학생수에 비하여 악기는 너무도 부족했으므로 학생들은 새벽 4시부터 발성 연습에 몰두하여 근처 주민들을 곤란케 한 적도 있었고, 난방장치가 없는 혹한의 교실에서 어름짱 같은 견반을 두드리기가 [두드리기가] 일수[일쑤]였다”고 한다. 이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는 전란 중에도 중단 없이 신입생의 입학을 받았으며, 피난수도 부산에서 제1회 학부 졸업생을 배출하기도 하였다.<sup>21)</sup>

숙명여자대학교 또한 피난수도에서 음악전공 교육을 재개하였다. 전시 숙명여자대학교의 음악교육 규모는 크지 않았다. 1951년 현재 교수진으로 강사 나운영의 이름만이 언급되어 있으며, 나운영이 1951년에 담당한 과목으로는 “화성학 및 음악사” 강좌가 있었다. 하지만 숙명여자대학교가 전시연합대학 참여대학이므로 전시연합대학을 통하여 이루어진 음악교육으로 보완된 부분의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자재를 서울캠퍼스에 남겨둔 채 피난을 하였기에 교육 기자재의 확보가 필요했고, 피난지에서 피아노를 대여하거나 서울에 두고 온 피아노를 부산으로 옮기려 했던 기록이 남아있다. 동대신동에 임시캠퍼스를 구축했던 숙명여자대학교는, 앞서 언급된 서울대학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입생을 받았고, 피난수도에서 학부 4년 첫 졸업생을 배출했다.<sup>22)</sup>

20) 민은기 외,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50년사』, 서울: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1997, 8-9쪽.; 서울대학교20년사 편찬위원회, 『서울대학교20년사』, 서울: 서울대학교20년사 편찬위원회, 1966, 102쪽.

21) 민은기 외,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50년사』, 서울: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1997, 7쪽.; 서울대학교20년사 편찬위원회, 『서울대학교20년사』, 서울: 서울대학교20년사 편찬위원회, 1966, 102쪽.

22) 숙대30년사 편찬위원회, 『숙대30년사』,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1968, 76쪽.; 창학 100주년사 편찬위원회, 『숙명 100년: 1906-2006, I』,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창

대학 음악교육의 역사에서 음악전공 설치가 가장 빨랐던 이화여자대학교의 경우, 부산 피난 이후 우선 대청동에 위치한 필승각에 학교 사무실을 설치하고 피난 대학의 재개를 준비하였다고 한다. 이화여자대학교는 임시캠퍼스의 구축과 독자적 대학 운영에서 상대적으로 이른 출발을 하였고, 강당도 마련하여 졸업연주회 등 학내 음악 행사뿐 아니라 일반 음악회 등 문화행사도 이곳에서 이루어졌다.<sup>23)</sup> 그러나 신문 광고를 통하여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의 등록을 공고한 것이 1951년 9월 18일이었다는 기록에 미루어볼 때, 독자적인 학교 운영 준비에 상당 기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sup>24)</sup>

이화여자대학교의 음악전공 교육은 피난지 부산의 부민동에서 재개되었다. 당시 음악학부 교수진으로는 7명의 이름이 기록에 남아 있고, 김영의, 채선엽, 풀톤, 정희석, 민언득, 신재덕, 나운영이 그들이다. 피난수도에서 이루어진 교육의 성과는 1953년 2월 임시캠퍼스 강당에서 있었던 졸업연주회를 포함한다.<sup>25)</sup>

하지만 전쟁 중에 재개된 이화여자대학교의 독자적인 음악교육은 서울대학교나 숙명여자대학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월치 않았다. 당시 재학생들의 회고는 그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전기도 없고

---

학 100주년사 편찬위원회, 2008, 336-344쪽.

23) 이화70년사 편찬위원회, 『이화70년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56, 167-170쪽.

24) 이화여자대학교 음악연구소,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의 역사: 1886-2002』,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음악연구소, 2003, 125쪽.  
이화여자대학교의 전시연합대학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관련 정보로 전시연합대학교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박선영·김희용, 「한국전쟁기 대학상황의 이해: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37,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08, 354-356쪽.; 서울대학교20년사 편찬위원회, 『서울대학교20년사』, 서울: 서울대학교20년사 편찬위원회, 1966, 84쪽.

25) 이화여자대학교 음악연구소,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의 역사: 1886-2002』,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음악연구소, 2003, 126-127쪽.

의자도 없어 땅바닥에 나무판대기(널빤지)를 놓고 앉아 수업을 받았으며 ... 새벽 4시에 연습실을 차지하였고, 촛불을 벗삼아 연습하였다. 그래도 강당이 있어 채플도 보고 연주도 하곤 했다.” “서울에서 대단한 노력으로 가지고 있던 여섯 대의 피아노는 낮의 귀중한 시간동안에 사용되어야 했다. ... 저녁에는 위험한 촛불 조명 아래서 성악전공 학생들이 단순한 메들리의 스케일을 오르내렸다.” “수업이 끝나는 종소리가 들리면 그나마 몇 개 있는 피아노 연습실을 차지하기 위해 훑먼지와 함께 달려가는 모습이 가관이었다. 한 대의 피아노에 몇 명이 매달려 순서를 기다리는 악조건에서도 나는 바하, 쇼팽, 베토벤의 소나타를 치곤 했다.”<sup>26)</sup>

이와 같이 전시 대학 음악교육은 약화된 상태로 이루어졌지만, 등교할 여건이 되고 향학 의지를 가진 음악전공자가 배움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음악교육이 유지되었다는 점은 대학 음악교육의 역사에서 의미 있는 대목일 뿐 아니라, 대학 음악교육의 새로운 성장 가능성 또한 전시 대학 음악교육에서 포착된다. 이는 소폭이나마 음악교육의 기반 확장이 전시에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대학 내 음악교육의 위상 강화가 전시에 이루어진 대학이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음악교육 기반 확장의 예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대학교의 경우, 음악교육의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음악전공 교육은 전쟁 중에 오히려 입학 정원의 확대를 이루었다. 전시의 혼란으로 인하여 실제 입학생 수는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했으나, 1951년 전시연합대학 시절 280명이던 음악전공자 정원이 1953년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음악부 정원 300명으로 증가하였다고 한다.<sup>27)</sup> 이화여자대학교의 경우, 피

26) 이화여자대학교 음악연구소,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의 역사: 1886-2002』,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음악연구소, 2003, 126쪽.

27) 민은기 외,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50년사』, 서울: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1997, 8쪽. 숙명여자대학교의 경우, 1948년 5월 대학 승격 인가를 받았을 때의 음악학과 정원 80명이 1953년에 동일하게 유지되었다는 기록도 있고, 1953년 4월 30일 현재 “학생 동태 수업 상황표”에는 음악과 정원이 120명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기록도 있다. 숙명여자대학교의 경우도 실제 입학생 수는 정원수에 미치지 못하였고

난수도에서 있었던 1951년 12월 31일의 학제 개편에서 예림원이 예술대학으로 이름을 바꾸어 음악교육이 예술대학 음악학부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이때 개편인가에는 대학원의 음악학과 설치도 포함되었다.<sup>28)</sup>

전시를 거치며 대학 체제 내에서 음악교육의 위상 상승을 보인 예로는 서울대학교의 사례가 있다. 전쟁 발발 당시 서울대학교의 음악전공 교육은 예술대학의 음악학부 체제로 이루어졌으나, 1953년 예술대학 소속의 음악부가 음악대학으로 승격하여 독립하였다. 이는 그해 4월 20일에 공포된 국립학교설치령에 따른 것이었다.<sup>29)</sup>

정리하면, 전쟁의 발발은 사회 전반적으로 그러했듯이 대학 음악교육에 있어서도 심각한 손실과 혼란을 초래하였다. 하지만 음악교육의 주체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나마 교육과 학습을 지속하였고, 졸업생을 배출하여 전문음악인 그룹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리고 전쟁 중에 공식적인 정원의 확대와 음악전공 교육의 위상 제고가 이루어져 향후 음악 교육의 실제적 확장과 성장을 예비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3. 전시 음악전공생의 수난과 희망, 작곡가 이영자의 음악 경험

각 대학의 역사서술을 분석하여 재구성한 이상의 내용이 전시 대학

그 차이가 작지 않다. 숙명여자대학교50년사 편집위원회, 『숙대50년사』,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1989, 902쪽.; 창학 100주년사 편찬위원회, 『숙명 100년: 1906-2006, I』,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창학 100주년사 편찬위원회, 2008, 316-343쪽.

28) 이화여자대학교 음악연구소,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의 역사: 1886-2002』,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음악연구소, 2003, 125쪽.; 이화70년사 편찬위원회, 『이화70년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56, 172-173쪽.

29) 민은기 외,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50년사』, 서울: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1997, 8-9쪽.; 서울대학교20년사 편찬위원회, 『서울대학교20년사』, 서울: 서울대학교20년사 편찬위원회, 1966, 88, 102쪽.

음악교육의 전반적인 틀과 대체적인 변천의 윤곽을 보여주는 한편, 당시 음악을 전공하던 대학생의 개인적 기록은 전시 대학 교육의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당시 대학 음악교육에 대한 이해를 보완하는 유용한 통로를 제공한다. 작곡가 이영자(1931-)가 피난수도에서 겪었던 음악 경험의 기록은, 개인 음악전공자에게도 전쟁은 극심한 수난을 가져오는 동시에,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형성된 피난수도의 문화 지형은 예기치 않았던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음을 보여준다.

이영자는 1950년 5월 이화여자대학교 예림원 음악학부에 피아노 전공으로 입학하였고, 입학 한 달여 만에 6·25 전쟁에 직면하였다. 그에게 전쟁의 발발은 일차적으로 “꿈은 산산이 부서졌다”라는 표현으로 회상된다. “학교는 문 닫고, 기숙사에서 벼려지고, 비참한 고아가 되어 9월 28일까지 끓어버린 부모형제를 찾아 헤매이고 방황하였다.”<sup>30)</sup> 기숙사에 입사해 있던 이영자는 고향인 강원도 원주와 서울을 오고 가는 고생 끝에 다행히 가족을 만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1950년 12월 부산으로 피난을 간다.

하지만 이화여자대학교는 아직 독자적인 교육을 재개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영자는 1951년 가을이 되어서야 등교하기 시작했다고 기억한다. 부산의 임시캠퍼스에서 이루어진 이화여자대학교의 음악교육에 대하여 이영자는 다음과 같은 회고를 한다.

이화대학생은 이화대학으로 모여라 그래서 이제 찾아갔는데, 그게 대신동의 맨 끝에다가 천막을 아마 여서 일곱 개는 친 것 같아요.<sup>31)</sup> 그래 가지고 이화대학생 적이 있는 사람들은 다 모여서 거기서 공부했는데, 그 51년부터 53년 이제 종전이 돼 가지고 다시 정부가 서울로 올 때까지 그 이화대학은 그 천막 속에서 했는데, ... 우리는 피아노가 없으니까, 그

30) 이영자, 「나의 이화회고」, 『이화음악 114년의 음악교육 : 2000 정기학술대회』,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음악연구소, 2000, 78쪽.

31) 『이화70년사』에 따르면 부민동에 임시가교사 30동을 세웠다고 한다. 이화70년사 편찬위원회, 『이화70년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56, 169쪽.

어플라이드 혼들리는 피아노에서 거기서 한 시간씩 짜가지구 베토벤 소  
나타 치구, 바하 치구, 쇼팽을 치구, 지금 생각하면 참 눈물이 나오. ...  
근데 한참 인제 손가락을 풀어서 쇼팽을 칠라구 그러면 ‘애, 영자 일어  
나. 애, 내 시간이야 애’ 그러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 해가 있을  
때 나와 가지고 ‘야, 내가 피아노 좀 쳤으면 좋겠다. 원이 없겠다’ 그러구  
서는 이렇게 바다 쪽을 바라봐요. ... 우리가 이렇게 공부해가지구 뭐가  
될 것인지 ...<sup>32)</sup>

앞서 공식적인 대학의 역사서술에 기초하여 설명했던 피난수도에서의  
음악대학의 운영을 더욱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이  
인용문은, 전시를 맞은 한 음악전공생의 심경 또한 생생하게 표현해 준  
다. 음악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피난 대학의 열악한 음악교  
육 환경과, 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향학열을 동시에 드러내는 위  
의 인용문은, 불투명한 미래가 전쟁의 혼돈 속에서 더욱 불확실하게 느  
껴지는 상태에 놓인 피아노 전공생 이영자의 심정을 엿보게 한다.

불리한 교육환경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대학 음악교육은 이영자가  
마치 깨질 것 같이 느꼈던 음악전공생의 꿈을 지탱하는 기반이 되어 주  
었음을 다음의 인용문들은 보여준다.

오늘은 피아노 레슨 날이다. ... 뜻밖에도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만 해  
주셨다. 그리고 쇼팽의 Impromptu라는 어렵고 큰 곡을 주셨어. ... 이제  
얼마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온다. 그때 22일에 우리학교 제1회(사변후)  
연주회가 있어. 요즘 맹연습 중이다.<sup>33)</sup>

1월 중순에 방학이 끝나고 1주일 동안 학기말 시험, 또 피아노 시험.  
...<sup>34)</sup>

---

32) 이영자, 『이영자』, <https://www.daarts.or.kr/handle/11080/60659>, 접근 2023.06.  
24.

33) 이영자, 『불사조의 노래』, 서울: 문학관, 2014, 106쪽.

34) 이영자, 『불사조의 노래』, 서울: 문학관, 2014, 120쪽.

오후 4시부터 있는 7월의 월례음악회에 내 작품이랄까 졸 작품이 발표되는 순서가 있어서 웬지 마음이 떨리기도 했다. ...

오후 네 시. 강당은 초만원을 이루었다. 피아노연주라면 마음이 좀 편 할 것 같았는데 작품을 발표하자니 뒤에 듣는 평이 두렵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어쩔줄 모르겠다... 아~무도 안 왔으면~ 하고 은근히 바랬는데 시간이 되니까 예술대학 학생들이 다 모여들었다.<sup>35)</sup>

이러한 기록은 피난수도에서 개강한 대학에서도 음악전공 교육의 핵심 일정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전공 레슨, 연주 시험과 기말 시험, 학습의 성과를 확인하는 월례 발표회 등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 과정 속에서 이영자는 자신의 열정과 노력을 투여하여 음악 공부에 열중하고 있었다.

한편 전시 피난수도의 정치 군사적 상황 속에서, 이영자는 그의 일상적인 음악 공부에 더하여 음악전공자들이 참여하도록 요구되는 학외의 정치 사회 행사에 참여하여야 했다.

아침에 학교에서 나오라고 전화가 왔다. 못 가겠다고도 못하고 빠질 용기도 없어 갔더니 10시부터 극장에서 명예상이군인 제대식이 있어 음악부 일동이 합창을 하는 거였다. ...

상이군인들! ... 꽂다발 받는 눈 없는 군인이 손으로 더듬으며 받는 것을 볼 때 ... 란! 나는 차마 얼굴을 들을 수가 없었다.<sup>36)</sup>

위의 인용문은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부 학생들이 군사 정치 행사에 필요한 경우 동원되어 공연하였음을 보여준다. 이외에도 이화여자대학교 음악전공 학생들은 UN 관련 위안음악회, 종군기자 귀환보고 강연회 등 다양한 정치 군사 사회 행사에 찬조 출연을 하였다.<sup>37)</sup> 서울대학교 예술

35) 이영자, 『불사조의 노래』, 서울: 문학관, 2014, 121-122쪽.

36) 이영자, 『불사조의 노래』, 문학관, 2014, 111-112쪽.

37) 「국련 한국협회 음악회 개최」, 『부산일보』, 1951.03.24.

「종군기자 귀환보고 강연회」, 『부산일보』, 1951.12.08.

대학 음악부 학생들 또한 해군 정훈과 공군 정훈 활동에 참여했다는 기록이 있으므로,<sup>38)</sup> 단지 이화여자대학교의 음악전공 학생뿐 아니라 당시의 음악전공생들은 대체로 음악연주를 통하여 전시의 군사 정치 행사에 참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영자는 자신의 음악 공부 일정에 차질을 가져오는 이러한 행사 참여가 달갑지 않았으나, 막상 행사에 참여하는 자리에서는 전쟁의 참상을 재인식하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불행에 공감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다른 한편으로 전쟁하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학교에서의 공부와 학외의 행사 참여를 하던 이영자는, 전쟁에 직면하여 한때 “꿈이 산산이” 부서지는 듯 느꼈던 시기가 있었으나, 피난수도에서의 생활은 실제로 꿈이 무너지는 과정인 것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또한 새로운 꿈을 꾸는 과정이 되었다. 피아노 전공생이었던 이영자는 피난지에서 공부하는 동안 작곡으로 전공을 바꾸게 되었고, 전공을 변경하는 과정에는 피난수도 부산의 문화 지형이 가능하게 했던 작곡가 나운영과의 특별한 만남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나는 여학교 때 춘천에서 17살 때, 15살에 해방이 됐는데 17살 때 한국 그 음악책이 나왔어요 ... 거기에 나운영의 그 <가려나> 그런 노래들이 ... 그 노래가 나와 있어서 우리가 여학교 때 많이 노래했는데, 나는 그 노래를 부르고서 피아노 반주하면서 친구들하고 부르면서, 이 다음에 내가 기회가 되면 나운영 선생님한테 가서 공부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

...  
영주동 고개는 내가 매일 걸어가는 길인데 그 길목에, 그 언덕 위의 집에 나운영 음악교실. 그게 있어서, 그게 51년 봄에 내가 몽유병자처럼 거길 찾아간 거예요. 돈도 없으면서. 찾아가서 공부를 하겠다고 나선 게

---

『종군기자의 보고』, 『부산일보』, 1951.03.08.

38) 민은기 외,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50년사』, 서울: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1997, 10-11쪽.

이제 나운영 선생님을 만난 귀중한 순간이죠.<sup>39)</sup>

이영자는 음악 교과서에 실린 노래를 통해서만 알고 있던 작곡가 나운영을 뜻밖에 피난수도에서 만나게 된다. 많은 음악가들이 그랬듯이 나운영 또한 부산에서 피난 중이었고, 부산에서 피난 생활을 하던 이영자는 멀리서 존경하고 있던 나운영을 1951년 봄 예기치 않게 피난민들이 밀집해 살던 부산에서 만나게 된다.

이영자는 음악이론 연구에도 몰두하던 작곡가 나운영에게 개인적으로 화성학 대위법 등 음악이론 레슨과 작곡 레슨을 받기 시작하였고, 이것 이 음악가 이영자의 작곡 공부의 출발점이 되었다. 나운영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개인적으로 했던 이론과 작곡 공부는 이화여자대학교가 교육을 재개하여 학교에서 화성학을 배울 때 이영자가 학교 선생님께서 쓰시는 화성에서 오류를 인식할 만큼 화성학에 대한 이해를 갖추게 하였다. 학교 선생님은 이영자에게 작곡과로 전과하도록 조언하였고, 결국 그는 피아노과에서 작곡과로 전과를 하였다. 그리고 나운영이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가르치게 됨에 따라 이영자는 대학 교육의 틀 안에서 나운영과의 작곡 공부를 계속하게 되었다.<sup>40)</sup>

한때 피난수도 부산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우리가 이렇게 공부해가지 구 뭐가 될 것인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던 이영자는 이제 “조선에 없는 여류 작곡가가 되어볼까... 못되더라도 그러한 야심이라도 품어볼까?” 하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된다.<sup>41)</sup> 작곡과로 전과하여 작곡을 공부한 이영자는 학교가 서울로 복귀한 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하여 작곡 공부를 계속하였고, 이후 프랑스에서 작곡 전공으로 유학을

39) 이영자, 『이영자』, <https://www.daarts.or.kr/handle/11080/60659>, 접근 2023.06.24.

40) 이영자, 『이영자』, <https://www.daarts.or.kr/handle/11080/60659>, 접근 2023.06.24.

41) 이영자, 『불사조의 노래』, 서울: 문학관, 2014, 120쪽.

하였다.

귀국하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교수로서 후학을 가르친 이영자는, 작곡으로 유학을 한 최초의 한국 여성작곡가, 그리고 한국여성작곡가회 초대 회장직을 맡았던 한국의 대표적인 여성작곡가로 기억되고 있다. 전쟁 발발에서 꿈이 부서지는 느낌으로 절망했던 피아노 전공생 이영자는, 피난수도 부산에서 음악공부를 재개했다. 그리고 피난민으로 부산에서 서로 접근(至近) 거리에 살게 된 음악인들이 형성한 피난수도의 새로운 문화 지형은, 이영자가 작곡학도로서 그의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하고 그 꿈을 실현해 가는 과정에 일조하였다.<sup>42)</sup>

#### 4. 결론

이상에서 6·25 전쟁 발발 당시 음악전공 교육을 제공하던 세 개 대학에서 이루어진 음악교육을 통합적 시각에서 전체적으로 조망하였다. 요약하면, 우선 전쟁 발발과 함께 음악전공을 설치하고 있던 대학의 피난으로 음악전공 교육은 일시 중단되었다. 서울수복 이후 서울에서 대학들이 연합으로 제공한 교육은 실제 운영이 매우 제한적이었으나, 1·4 후퇴 이후 피난수도 부산 등지에서 전시연합대학이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음악교육의 지속성이 확보되었다.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서울대학교는 피난수도에 구축한 임시캠퍼스에서 각각 독자적

42) 이영자는 그가 고등학교 시절 음악교과서에서 배운 노래를 통하여 알고 있던 또 한 명의 작곡가 김순애도 피난수도에서 우연히 마주하게 된다. 길을 걷던 중 합창 소리에 이끌려 가게 된 곳에서 뜻밖에도 김순애가 합창 지휘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한다. 학생으로서 음악교과서에서 배워 아는 여성 음악가의 활동을 우연히 직접 목격한 경험 또한 전시 피난수도의 문화 지형에서 가능했던 이영자의 특별한 경험이었으리라고 사료된다.

이영자, 『이영자』, <https://www.daarts.or.kr/handle/11080/60659>, 접근 2023.06. 24.

인 음악교육을 시작하였다.

전시의 대학 음악교육은 피난수도 부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서울대학교 음악전공 학생들 다수는 대구에서 머무는 기간을 거쳐 부산으로 이동), 전시에 봉착한 음악교육의 난제들은 해결이 쉽지 않았으나, 다양한 보완의 방식을 통하여 음악교육은 계속되었다. 예를 들면, 연습실의 부족은 앞의 인용문에 보이듯이 이른 새벽부터 어두운 밤까지 연습실을 사용하는 연습 시간의 분산으로 보완하였다. 악기의 부족은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서울수복 이후 소실을 모면한 악기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옮겨 오거나 원조를 통하여 보충하였으며, 피난수도에서 확보가 가능한 악기를 대여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교육시설과 기자재를 대부분 서울 캠퍼스에 남겨둔 채 피난해야 했던 대학들이 전쟁의 혼란 가운데 음악교육을 지속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동반한 것이었음을 우선 강조하면서, 이 연구는 수난의 와중에도 대학 음악교육의 새로운 희망이 발견됨을 또한 주목하였다. 첫째, 대학 체제에서 음악교육의 확장이 학생 정원의 증원으로 공식화되었다. 서울대학교는 학부 음악전공 학생 정원이 증원되었고, 이화여자대학교는 대학원 신설에 음악전공을 포함하였다. 둘째, 대학 내 음악교육의 위상 제고가 이루어졌다. 서울대학교의 경우 예술대학 내에 존재하던 음악부가 단과대학으로 독립하여 음악대학으로 승격하였다. 셋째, 부산의 선(先)거주 음악가들과 피난민 음악가들이 함께 밀집하여 이룬 피난수도의 새로운 문화 지형에서 다변화된 음악적 조우는, 작곡가 이영자의 음악적 성장 과정의 예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음악을 공부하는 학생이 학교의 울타리를 벗어나서라도 피난민들이 모여 사는 가까운 거리에서 음악전문가와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음악적 미래를 꿈꾸고 준비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전쟁으로 인한 파괴와 혼란, 음악교육에 필수적인 자원의 손실, 대학 당국과 교수 학생이 함께 겪어야 했던 고난과 역경의 와중에도 발견되

는 대학 음악교육의 성장과 음악전공생의 성장을 위한 희망의 단초를 발견하는 이 글을 마무리하며, 필자는 숙연한 마음으로 전쟁 중에 학교를 떠난 후 복귀하지 못한 학생들 또한 그 수가 많았음을 상기한다. 그리고 전쟁 중 음악전공 정원의 증가가 외형상 성장의 단초가 되었다 하더라도, 정원에 미치지 못했던 등록생 수 등 전쟁 중 음악전공 교육의 실제적 굴곡을 보다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음을 또한 주목한다. 대학교 발행 역사서술, 선별된 당시의 신문 기사, 그리고 작곡가 이영자의 전시 기록과 구술 기록 등을 참고한 이 연구에서 아직 다루지 못한 전시 대학 음악교육의 다양한 측면들에 대한 논의를 후속 연구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전쟁기 문화연구가 많은 경우 그렇듯이, 전시 대학 음악교육 연구의 기반으로 삼을 전시의 기록 또한 과편적이고 찾을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지만, 이 논문을 시론으로 삼아 전시 음악교육의 다양한 양상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연구를 지속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 민은기 외,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50년사』, 서울: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1997.
- 이영자, 『불사조의 노래』, 서울: 문학관, 2014.
- 이영자, 『이영자』, 서울: 대한민국예술원, 2023.
- 이화여자대학교 음악연구소,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의 역사: 1886–2002』,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음악연구소, 2003.
- 이화70년사 편찬위원회, 『이화70년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56.
- 서울대학교20년사 편찬위원회, 『서울대학교20년사』, 서울: 서울대학교20년사 편찬위원회, 1966.
- 서울대학교40년사 편찬위원회, 『서울대학교40년사: 1946–1986』, 서울: 서울대학교, 1986.
- 숙대30년사 편찬위원회, 『숙대30년사』,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1968.
- 숙명여자대학교50년사 편집위원회, 『숙대50년사』,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1989.
- 창학 100주년사 편찬위원회, 『숙명 100년: 1906–2006, I』,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창학 100주년사 편찬위원회, 2008.

### 2. 논문

- 김창욱, 「광복~한국전쟁기 부산음악계: 부산지역 일간지를 중심으로」, 『항도부산』 16, 부산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2000, 278–346쪽.
- 김창욱, 「한국전쟁기 부산음악의 사회사」, 『음악학(音樂學)』 8, 한국음악학회, 2001, 85–129쪽.

- 남영희,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과 전시음악사회」, 『한국문학논총』 91, 한국문학회, 2022, 5-46쪽.
- 남영희, 「해방기 부산음악사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 남영희 · 이순옥, 「해방기 부산 음악교육기관과 음악교육」, 『인문연구』 97,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1, 211-246쪽.
- 박선영 · 김희용, 「한국전쟁기 대학상황의 이해: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37,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08, 341-370쪽.
- 손인수, 「한국동란중 전시연합대학에 관한 연구」, 『교육연구』 29,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1995, 49-62쪽.
- 연정은, 「전시연합대학과 학원통제」, 『사립』 24, 수선사학회, 2005, 275-303쪽.
- 이순옥, 「한국전쟁기 부산지역 예술사회의 동향: 미발굴 잡지 「예술타임쓰」를 중심으로」, 『항도부산』 45, 부산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2023, 277-312쪽.
- 이영자, 「나의 이화희고」, 『이화음악 114년의 음악교육 : 2000 정기학술대회』,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음악연구소, 2000, 78-82쪽.
- 제갈삼, 「한국전쟁기 부산음악의 실상 - 음악인 · 음악단체 · 연주회장 · 감상실 등을 중심으로」, 『음악학(音樂學)』 8, 한국음악학회, 2001, 131-184쪽.
- 조선우 · 이기정 · 김원명, 「부산음악사 서술을 위한 시론」, 『음악과 민족』 19, 2000, 71-121쪽.

### 3. 신문자료

- 「국련 한국협회 음악회 개최」, 『부산일보』, 1951.03.24.
- 「‘서라벌 예대’ 정식으로 인가」, 『부산일보』, 1953.06.05.
- 「종군기자 귀환보고 강연회」, 『부산일보』, 1951.12.08.
- 「종군기자의 보고」, 『부산일보』, 1951.03.08.

4. 인터넷 자료

- [영자, 『○]영자』, <https://www.daarts.or.kr/handle/11080/60659>, 2023.  
06.24. 접근.

<Abstract>

## Hardship and Hope: An Exploration of University Music Education during the Korean War

Kim, Hee-Jin\*

This paper explores music education at the university level during the Korean War. Music majors were offered at three universities – Ewha Womans University, Sookmyung Women's University,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 when the war broke out in 1950. All three universities were relocated to the newly appointed capital city of Pusan to continue education. This move and the turmoil of the war led to university music education developing in uneven ways, leaving various facets in need of exploration. This paper aims to reveal that even through the disruptions of the Korean War, positive developments were made in music education. In particular, the status of music education within universities rose, and there was a case in which a student majoring in music was able to interact with a relocated musical expert, shaping her future career path in ways not possible before the war. These discussions are based on analysis of previous research, historiographies written by universities, selected newspaper articles, as well as the wartime notes and oral history of Young Ja Lee, an undergraduate composer during the war. This research advances the understanding of music education during the

---

\*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war by analyzing and consolidating information on wartime university music education previously scattered among various sources. Also, this research will contribute to understanding the history of music education as part of the cultural history of Pusan.

Key Words: Music Education, University, Higher Education, Korean War, Pusan, Wartime Capital City, Young Ja Lee  
(Composer)

■ 논문접수 : 2023년 07월 25일

■ 심사완료 : 2023년 08월 16일

■ 게재확정 : 2023년 08월 16일